



전북체육회가 통합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북체육회 회원단체 사업설명회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소년체전부터 동계체전까지... 전국대회 성적 향상 '쾌재'

**지**난해 3월 3일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출범된 '전북도체육회'가 통합 1주년을 맞았다.

엘리트체육 70년과 생활체육 25년의 역사를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중분한 성과를 올린 한해였다.

도 체육회는 통합 초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조지를 대부분 유지하는 2차로 출발했지만 이후 여러가지 시행 착오를 겪으며 1차로 성공적으로 개편했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14개 시·군 체육회와 6개의 종목단체의 통합도 큰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도 체육회의 원활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단체 간 협의점을 찾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였다.

통합 출범 첫해 가장 큰 성과는 다양한 전국대회의 놀라운 성적 향상이었다.

전북체육회는 2016년 5월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11위로 시작하며 이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14개 종목 최다 우승, 제97회 전국체전 종합 9위, 제98회 전국동계체전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대회에서 발전된 모습을 선보였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둔 전북체육회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 차후 1년을 종목 저변확대와 열악한 선수층 육성방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은 전북도내에서 5월 FIFA U-20 월드컵을 비롯해 6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어 전북체육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통합의 원년을 맞아 클럽팀과 학교팀 창단을 유도해 경기력을 향상하고 성적도 올리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전문체육의



초반 엘리트-생활 유지로 출발  
단체 간 협의점 찾아 1차로 개편

생활체육대축전 14개 종목 우승  
전국체전 종합 9위 등 이뤄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닦아져야 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방안을 더욱 확충시켜 나갈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공적 전국체전 개최 위한 기반 조성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전북체육회 향후 1년 우선 계획

#### ▶ 체육진흥기금 100억 조성

전북체육 100년 대계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이 올 12월말에 목표인 10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자립기반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 체육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꿈나무 육성과 월드컵 육성, 체육강학금 지급과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 등을 전개해 미래 전북체육발전의 전기를 만들 예정이다.

#### ▶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로 맞춤형 스포츠과학화 실현

스포츠과학 시대에 걸맞은 전북스포츠과학센터의 활약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위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오던 스포츠과학서비스를 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일반부 선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선수들의 훈련지세와 운동기술에 대한 처방, 심리·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향상지원에 힘을 쏟아 스포츠 과학센터가 전국 최고 롤 모델로 부상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2018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체육시설 확충과 불출전 종목 저변층 확대, 실업팀 창단 등에 중점을 두어 '종합3위' 이내 입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창단, 우수선수 영입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치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목별 경기장을 14개 시·군에 고루 배분하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장 제공과 도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서 면모를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스포츠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